

스위스정부관광청의 새로운 여행테마 스위스 그랜드 투어(Grand Tour of Switzerland) 8일 코스를 따라가며 만나는 보물같은 42개 하이라이트. 드라이브로즐기는 알프스의 숨은 보석들

스위스 정부관광청은 2015년과 2016년을 '스위스 그랜드 투어(Grand Tour of Switzerland)'의 해로 정하고,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며 스위스의 작은 마을과 알프스의 고갯길 등,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힘든 숨겨진 명소와 가장 스위스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여행 방법을 알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려욱, 규현이 2015-2016년 스위스정부관광청 홍보대사 '스위스 프렌즈'로 위촉되어 스위스 그랜드 투어를 직접 체험해 볼 계획이다.

스위스 그랜드 투어는 '목적지'를 향하는 여정이 아니라, '여정' 자체가 목적인 여행이다. 스위스 전역을 연결하는 이 루트는 스위스의 네 가지 언어권과 다섯 개의 알프스 고갯길, 열 한 개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 두 개의 습지와 스물 두 개의 호수를 지나는 1600여 킬로미터의 대장정이다. 그랜드 투어를 통해 스위스를 보다 촘촘히 여행할 수 있다. 자동차로만 볼 수 있는 기막힌 파노라마와 문화재를 보는 묘미도 빼 놓을 수 없다.

8일 동안 이어지는 8개의 코스 중에서 반드시 둘러 보아야할 코스별 하이라이트 42개를 소개한다.

스위스 그랜드 투어 8일 루트와 하이라이트 42선.

Day 1

- 1. 구간: 취리히(Zurich) 아펜첼(Appenzell)
- 2. 코스 길이: 175km
- 3. 코스 특징
- 스위스 최대의 도시, 취리히에서 알프스 전지대에 이르는 소도시로의 여행
- 콘스탄츠 호수(Lake Constanze)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풍경의 드라이브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아름다운 수도원 도서관이 있는 상트 갈렌(St. Gallen) 수도원 구역(Abbey District)

하이라이트 1: 라인폭포(Rheinfall)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폭포로, 만오천년 전 빙하 시대에 만들어진 폭포로, 샤프하우젠(Schaffhausen) 근교에 위치한다. 150m가 넘는 너비에, 수백 입방미터에 달하는 물이 초당



23m의 속도로 웅장하게 떨어지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폭포가 정면으로 보이는 소용돌이 한 가운데 폭포를 전망할 수 있는 바위가 있는데, 배를 타고 이 곳까지 이동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 2: 슈타인 암 라인 마을(Town of Stein am Rhein)

콘스탄스(Constance) 호수가 다시 라인 강이 되어 흐르는 지점에서, 작은 마을 슈타인 암 라인(Stein am Rhein)을 발견할 수 있다. 중세 수도원 건물 중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 중 한 곳인 생 게오르겐(St. Georgen) 수도원, 19세기의 부르주아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린트부름(Lindwurm) 박물관이 눈에 띈다. 1225년 마을 위에 세워진 호엔클링엔 (Hohenklingen) 성 은, 슈타인 암 라인의 다채로운 역사를 보여주는 존재이다.

하이라이트 3: 상트 갈렌 수도원(Abbey of St. Gallen): 유네스코 세계유산

상트 갈렌(St.Gallen)의 모퉁이마다에는 역사가 깃들어 있다. 도시의 랜드마크인 상트 갈렌(St.Gallen) 수도원은 도서관과 수도원 기록 보관소를 갖춘 바로크식 대성당으로, 1983년에 유네스코(Unesco) 세계 유산 목록에 추가되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도원 도서관에 들어서면 열성적인 베네딕트회(Benedictine) 수도사들의 옛 정신이 오늘날에도 만져질 듯 생생히 느껴진다. 수도원의 도서관은 현재 16,000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50,000권은 바로크식 홀에 보관되어 있으며, 또한 이 곳에선 2,700년된 이집트의 미라 쉐피니스(Shepenese)가 발견되기도 했다. 수도원 도서관 콜렉션의 핵심은 2,100개의 원고로 일부는 현재 열리는 각 전시에서 전시되기도 한다. 상트 갈렌 구시가지에는 16에서 18세기에 만들어진 부르그허 하우스(burgher house)가 들어서 있는데, 화려하고 밝게 칠해진 퇴창들이 인상적이다.

하이라이트 4: 아펜첼 구시가지(Painted Facades in Appenzell)

작은 마을인 아펜첼(Appenzel)은 가장 스위스다운 풍경을 간직한 마을이다. 초록 언덕과 소떼가 있고, 옛 전통과 풍습이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구시가지에는 화려한 벽화가 아름다운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하다. 좁은 길과 작은 상점에서는 아펜첼의 전통 공예와 향토 음식을 구입할 수 있고, 이마을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아펜첼러 치즈가 생산되는 공장도 방문해 볼 수 있다. 조밀한하이킹로는 아펜첼의 초록 구릉지대를 향해 사방으로 뻗어 있다.

Day 2

- 1. 구간: 아펜첼(Appenzell) 생모리츠(St. Moritz)
- 2. 코스 길이: 200km
- 3. 코스 특징
- 샌티스(Säntis) 산의 슈배그알프(Schwägalp: 해발고도 1278m)로 향하며 고도 상승



- 스위스 사르도나 지각표층지역(Tectonic Arena Sardona), 뮈스테어 성 요한 베네딕트 수녀원(Convent of St. John Müstair), 래티안 철도(Rhaetian Railway Albula/Bernina) 알불라/베르니나 구간 등 유네스코 문화유산지 방문
- 사랑스런 하이디 마을부터 험준한 알프스로 향하는 풍경이 펼쳐지는 구간
- 알프스 고갯길, 플뤼엘라(Flüela)를 넘는 여정
- 세계적인 VIP 리조트, 생모리츠(St. Moritz)

하이라이트 5: 스위스 사르도나 지각표층지역(Swiss Tectonic Arena Sardona) : 유네스코 세계유산

피츠 사르도나(Piz Sardona) 주변의 300km2 지역은 지질학적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래된 암석이 2억년이나 어린 암석 위에 올라앉은 기이한 광경을 볼 수 있다. 산의 형성 과정과 판구조론을 입증하는 증인인 셈이다. 이런 지형학적 기이 현상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곳이기도 하다.

하이라이트 6: 뷘드너 헤르샤프트(Bündner Herrschaft)와 하이디 마을

그라우뷘덴의 가장 북쪽 모서리에 위치한 아담한 휴양지이자 와인 생산지인 뷘드너 헤르샤프트(Bündner Herrschaft)는 라인(Rhine) 강변 오른쪽부터 뻗어 나와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공국과의 국경까지 닿아있다. 그라우뷘덴의 관문인 이곳의 중심은 마이엔펠트(Maienfeld) 마을인데, 하이디 마을로도 유명하다. 하이디의 작가인 요한나 슈피리(Johanna Spyri)는 120년 전, 뷘드너 헤르샤프트(Bündner Herrschaft)의 아름다운 풍경에 영감을 얻어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써냈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7: 산악 마을 구아르다(Guarda)

엥가딘(Engadine) 계곡 아랫쪽에 자리한 산악 마을 구아르다는 소박하면서도 아름답다. 스위스의 유명한 그림책 작가, 알로이스 카리지에(Alois Carigiet)의 정겨운 마을 풍경에 영감을 준 특유의 소박한 가옥들이 인상적이다. 계곡에 자리한 산골 마을인 만큼 하이킹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1945년에 출판된 카리지에의 그림책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꾸며진 특별한 하이킹로도 마련되어 있다.

하이라이트 8: 스위스 국립공원(Swiss National Park)

1914년 설립된 스위스 국립 공원은 알프스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이다. 공원내에서는 절대로 하이킹로를 벗어나서는 안되는 등, 자연에 대한 엄격한 보존 정책 덕에 아이벡스, 샤모아, 마모트, 북부 지방의 토끼, 도마뱀 및 희귀 조류들을 이곳에서 야생의 모습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다. 체르네츠(Zernez) 내 방문객 센터에서는 국립 공원에 대한 상설 전시가 열리고 있다.



하이라이트 9: 뮈스테어(Müstair)의 성 요한 베네틱트 수녀원(Benedictine convent of St. John) :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적으로 유명한 뮈스테어(Müstair)의 성 요한 수녀원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명소로써, 이 수녀원의 존재와 독특한 특성은 서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샤를마뉴 대제에 기인한다. 이 건물은 카롤링거 왕조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현재 몇 남지 않은 건축의 전형 중 하나이다. 웅장한 프레스코화가 있는 8세기 수녀원은 세계에서 가장 최대 규모이며, 중세 초기에 만들어진 예수 일대기를 그린 그림을 소장하고 있다. 플란타(Planta) 타워에 있는 수녀원 박물관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수녀원 내부의 업무를 훑어 볼 수 있도록 해준다. 960년부터 내려 오는 알프스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 탑에도 올라가 볼 수 있다. 전시관에서는 1200여년 동안의 수도승과 건축적 역사를 보여 주고 있다.

하이라이트 10: 무오타스 무라글(Muottas Muragl)

스위스의 VIP 리조트, 생모리츠(St. Moritz) 근교에 있는 하이킹으로 유명한 산, 무오타스무라글(Muottas Muragl: 2,456m)에서 보이는 환상적인 경관은 세기적인 화가와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화가 지오반니 세간티니가 묵었던 산장이 바로 근처에 자리한다. 그리고, 7킬로미터 길이의겨울 하이킹 트레일인, 철학자의 길에서는 지난 세기의 위대한 사상가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게 된다. 여름철, 파노라마 경관이 펼쳐지는 길은 고산지대 구릉지와 고원지대를 가로질러 인근 계곡 지역까지이르게 한다. 무오타스 무라글에 자리한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는 향토 메뉴와 이탈리아 메뉴를 다채로운 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데, 이 호텔과 전망대는 산악 열차로 올라갈 수 있다.

하이라이트 11: 래티쉬 반(RhB/Rhätische Bahn)의 알불라(Alblula)/베르니나(Bernina) 철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열차 애호가들은 쿠어(Chur)와 생 모리츠(St. Moritz) 사이의 알불라(Albula) 루트가 세계에서 가장 그림 같은 산악 루트라고 주장하며, 심한 커브로 이루어진 란트바써(Landwasser) 고가를 극찬한다. 베르니나 익스프레스(Bernina Express)에 탑승하면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철도를 체험해 볼수 있는데, 거대한 모르테라취(Morteratsch) 빙하 옆을 지나고, 톱니바퀴의 조력 없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며, 기차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알프스 고개인 베르니나 고개(2253m)를 지나며, 위험천만하게 원형을 그리며 포스키아보(Poschiavo)까지 그 여정을 이어간다. 이탈리아 티라노(Tirano)까지 여행하는 승객들은 브루지오(Brusio)에서 나선형 철로가 가져다 주는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Day 3

- 1. 구간: 생모리츠(St. Moritz) 루가노(Lugano)
- 2. 코스 길이: 221km
- 3. 코스 특징



- 두 개의 알프스 고갯길을 넘는 여정: 율리어(Julier), 산 베르나디노(San Bernadino)
- 높은 계곡과 깊은 협곡을 넘나드는 여정
- 야자수부터 빙하까지 볼 수 있는 드라마틱한 풍경의 차이
- 지중해풍의 지형과 마을들: 멘드리지오(Mendrisio), 루가노(Lugano), 아스코나(Ascona), 로카르노(Locarno)
- 호수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드라이브

하이라이트 12: 벨린쪼나(Bellinzona)의 세 개의 고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벨린쪼나의 고성들은 유네스코에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 되어 있다. 카스텔그란데(Castelgrande), 카스텔로 몬테벨로(Castello Montebello) 및 카스텔로 사쏘 콜바로(Castello Sasso Corbaro)가 그주인공으로, 도시를 방어하던 요새였다. 현재 남아있는 요새는 한 때 벨린쪼나를 모두 에워싸고 있었다. 고대 로마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방어지였기 때문인데, 처음 기록에 나타나는 것이 590년으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 중 카스텔그란데는 13세기에 지어진 세 성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두 개의 탑인 토레 네라(Torre Nera: 28m),와 토레 비안카(Torre Bianca: 27m)가 벨린쪼나의 구시가지를 돋보이게 만들어 주고 있다.

하이라이트 13: 아스코나(Ascona) 호숫가 산책로

아스코나(Ascona)는 스위스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죠레 호수(Lago Maggiore)의 북쪽 호반에 위치하며 해발 196m에 자리한 리조트 마을이다. 아스코나는 온화한 기후를 띄며, 구시가지에는 노천 카페가 늘어선 호반 산책길과 이태리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작은 골목들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아스코나의 구시가지인 보르고(Borgo)에는 산 뻬에트로 & 파올로(San Pietro e Paolo) 바실리카가 있는데, 16세기의 것이다. 바실리카를 정의하는 내부 기둥이 인상적이다. 이 곳의 높은 종탑은 휴가지, 아스코나의 랜드마크가 되어 주고 있다.

'진실의 산'이라 불리는 몬테 베리타(Monte Verità)산도 아스코나 위에 위치해 있다. 이 곳에는 20세기초 세상으로부터 은둔하고자 하는 철학자들이 모여 만든 은둔지가 있는데, 현재 이 은둔지는 전세계유명인사들이 찾을 만큼 인기가 있다.

하이라이트 14: 루가노(Lugano)의 몬테 브레(Monte Brè) 산

루가노 호수 위쪽에 자리한 수려한 풍경을 선사하는 몬테 브레 산(925m)은 카싸라테(Cassarate)에서 퓨니큘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 파노라마 감상을 위해서 꼭 한 번 올라 보아야 하는 산이다. 정상에는 두 개의 레스토랑이 있는데, 햇살 가득한 테라스에서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며 루가노 근교의 풍경을 즐기기 좋다. 루가노나 호숫가까지 내려가는 길에는 브레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 간드리아(Gandria) 마을까지 이어지는 생태 고고학 하이킹로가 이어지기도 한다. 로맨틱한 작은 브레 마을에는 티치노주의 저장 창고인 동굴 형태의 그로또(grotto)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식당이 많이 남아 있다.



하이라이트 15: 몬테 산 조르지오(Monte San Giorgio) 산 :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상에서는 감탄을 자아내는 풍경이 펼쳐지고, 한 때 이 곳에 서식했던 해양 동물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19세기부터 화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메카로 불리는 곳이자, 2003년부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다. 길이가 6m에 달하는 해양 파충류 및 물고기 화석이 수천개나 남아 있다고 전해진다. 한 때 바다 속 100m나 깊은 곳에 자리했던 곳이 산으로 솟아오른 것이다. 루가노호수의 남쪽 끝에서 바라보면 몬테 산 죠르지오는 마치 피라미드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나무가 울창한 남쪽 등성이를 따라 하이킹을 즐기다 보면 와인 밭을 가로지르는 즐거운 체험도 할 수 있다. 메리데(Meride)라는 낭만적인 마을을 지나며 마리오 보따(Mario Botta)가 리모델링한 화석 박물관을 둘러볼 수도 있고, 멘드리지오또(Mendrisiotto) 지역의 전형적인 동굴 형태의 그로또(grotto) 식당에서 만찬을 벌일 수도 있다.

Day 4

- 1. 구간: 루가노(Lugano) 체르마트(Zermatt)
- 2. 코스 길이: 264km
- 3. 코스 특징
- 역사 깊은 알프스 고갯길: 고타르드(Gotthhard), 푸어카(Furka) 패스
- 마터호른(Matthorn)을 향하며 인상적인 론느(Rhone) 빙하와 알레취(Aletsch) 빙하를 따라가는 드라이브 코스
- 친환경 마을이자, 스위스의 대표적인 사철 스키 리조트 및 하이킹의 천국, 체르마트(Zermatt)

하이라이트 16: 상트 고타르드 고개(St. Gotthard Pass)와 트레몰라(Tremola)

로마인들조차도 험준한 고타르드(Gotthard) 산을 피해갔다. 이 알프스 고갯길은 이때 괴쉐넨(Göschenen)과 안데르마트(Andermatt) 사이에 위치한 쉘레넨(Schöllenen) 협곡이 발견된 1200년 경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고타드 고개는 알프스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주고 있다. 유명한 고타르드 기차 터널은 1882년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고속도로용 고타르드 터널은 100년이 지난 후에 만들어졌다. 터널로 인해 알프스 남북 종단이 훨씬 수월해졌지만, 터널 속으로만 다니다 보면 고타르드 고갯길이 선사하는 근사한 풍경은 놓치기 마련이다. 특히 고타르드 고개 남단의 트레몰라(Tremola)는 조약돌로 마감한 도로인데, 기막힌 파노라마를 선사한다. 고개의 정상부터 뱀처럼 구불부굴 이어지는 도로는 아이롤로(Airolo)까지 계속되며,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적 산물로 간주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17: 융프라우(Jungfrau)-알레취(Aletsch) 빙하 : 유네스코 세계유산

청명한 공기와 뽀드득 거리는 눈밭, 아침부터 따사로운 햇살. 알레취 빙하와 발레(Valais) 주의 4000미터급 봉우리들을 감상하는데 더할나위 없는, 마치 오페라 박스석같은 관람 포인트다. 길이 23km, 평균 너비 1,800m, 약 100km2에 달하는 표면적으로 이루어진 알레취 빙하는 270억 톤의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빙하는 아이거(Eiger), 묀히(Mönch), 융프라우(Jungfrau)의 남단에서 움직이기 시작해 발레주 골짜기로 이동한다. 빙하가 녹은 물은 웅장한 마싸 계곡(Massa Gorge)를 지나 론느(Rhone) 강으로 흘러간다. 스위스 알프스의 보석같은 존재로, 2001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피셔알프(Fiescheralp), 베트머알프(Bettmeralp), 리더알프(Riederalp) 마을에서 하이킹을 해 에기스호른(Eggishorn)까지 가면 알레취 빙하와 피셔 빙하의 파노라마가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하이라이트 18: 마테호른(Matterhorn)

마테호른은 스위스를 대표하는 알프스 봉우리로, 체르마트(Zermatt)에 있다. 피라미드 모양의 뾰족한 산은 세상에서 가장 촬영이 많이 된 산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등반가들 사이에서 마테호른은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킬만큼 힘든 봉우리로 꼽힌다. 첫 등반이 1865년에 이루어졌는데, 2015년에 마테호른 150주년을 맞이한다. 오늘날에도 마테호른은 등반가들 사이에서 최상급 장비와 노련한 가이드를 대동한 등반전문가만 오를 수 있는 봉우리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들은 케이블카로 오를 수 있는 마테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Matterhorn Glacier Paradise)에서 그 웅장한 모습을 가장 가까이 감상할 수 있다.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 역(3820m)으로 꼽히는 곳에서 마테호른의 신비한 기운을 느껴볼 수 있다.

Day 5

1. 구간: 체르마트(Zermatt) – 로잔(Lausanne)

2. 코스 길이: 178km

3. 코스 특징

- 물의 길: 고대 수로인 수오넨(Suonen), 론느(Rhone) 강, 생 레오나르(St-Leonard) 지하 호수, 그랑 디성스(Grand Dixence) 댐, '스위스의 바다'라 불리는 레만(Léman) 호수, 시옹(Chillon)성
- 발레(Valais) 주의 고지대 산악 마을부터 살구 과수원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다가 스위스 최대의 와인 생산지가 펼쳐지는 장관이 펼쳐지는 여정
- 독어권에서 불어권으로 넘어가며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레만(Léman) 호의 풍경과 호반의 아름다운 마을, 몽트뢰(Montreux), 브베이(Vevey)
- 레만호반의 언덕에 자리한 로맨틱한 라보(Lavaux) 포도밭

하이라이트 19: 그리멘츠(Grimentz) 산악 마을

그리멘츠(Grimentz)는 발레 주의 발 다니비에(Val d'Anniviers) 계곡, 해발 1,570미터에 자리한다. 마치그림책에 나오는 마을 같은 풍경을 보여주는데, 태양에 그을려 검게 그을린 전통 가옥과 창가에 붉게 피어난 제라늄이 있는 곡물창고로 유명한 곳이다. 1550년에 세워진 부르그허 하우스(Burgher House)는 마을의 중심이 되어 주고 있다. 빙하 화이트 와인이 그리멘츠의 명물인데, 이 곳 부르그허하우스에 있는 셀러에서 숙성된다. 주변으로 펼쳐진 알프스 풍경 속으로 뻗어난 하이킹로와 자전거로가 100km에 달한다. 겨울이면 스키도 가능하다.

Switzerland Tourism



하이라이트 20: 생 모리스 수도원(Abbey of Saint-Maurice)

발레(Valais) 주에 위치한 생 모리스 수도원은 1500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한 곳이다. 성지순례에서 빠지지 않는 장소로, 현재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독교 성물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론느(Rhône) 강의 좁다란 곳에 위치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으므로, 마우리티우스(Mauritius) 장군이 이끄는 테반(Theban) 부대가 배치되었던 곳이다. 3세기에 기독교신앙을 고수하다가 이 부대가 전멸하는 사건이 있었다. 생 모리스 수도원은 부르고뉴의 왕군도바드(Gundobad)의 아들인 지기스문트(Sigismund)에 의해 515년 이 순교자들의 무덤 위에 지어진 것으로, 그 이후로 수도원은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금세공업자에 의해 만들어진 성물 컬렉션이 이곳의 보물로 널리 명성을 떨치고 있다.

하이라이트 21: 몽트뢰(Montreux)의 시옹성(Château de Chillon)

시옹 성은 레만 호숫가 바위 위에 위치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가장 많이 방문받는 역사적 건물로, 거의 4세기 동안 시옹성은 사보이 왕가의 거주지와 통행료 징수 장소로 사용되었다. 수백년 동안 레만호수의 뱃길이자 생 베르나르 고개(St. Bernhard Pass)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로, 시옹성이 있는 암석 섬에서 통제를 하였다. 시옹 성은 12-16세기까지 사보이 왕가에 속해 있었으며, 그 이후에 베른 사람들이 성을 정복하였고, 곧 이어 보(Vaud) 주의 사람들이 지배하였다. 약 300,000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매년 시옹 성을 방문한다. 성에서는 14세기부터 베른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던 당시부터 전해오는 벽화와 지하의 둥근 아치,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된 연회장 및 침실을 관람할 수 있다. 시옹 성은 2개의 원형 벽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25개의 빌딩과 3개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이라이트 22: 라보(Lavaux) 포도밭: 유네스코 세계유산

독특한 와인 경작 지역인 라보(Lavaux)는 몽트뢰(Montreux)와 로잔(Lausanne) 사이의 호숫가 언덕을 따라 뻗어있다. 가파르고 좁은 길인 "코르니쉬(Corniche)"를 따라가다 보면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드는 농가가 있는 전형적인 돌집 마을을 지나게 된다. 800헥타르에 달하는 계단식 포도 경작지라보(Lavaux)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징되었는데, 걷거나 자전거로 둘러보기 좋다. 와인 셀러에서라보산 와인 테이스팅을 즐길 수도 있다.

하이라이트 23: 로잔(Lausanne) 올림픽 박물관(Olympic Museum)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있는 로잔에는 가깝게 올림픽을 체험하고, 올림픽의 정신을 느껴보고,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올림픽 경기에 관한 역사에 대해 익힐 수 있는 올림픽 박물관이 있다. 근대 올림픽과 국제 올림픽 위원회를 창시한 피에르 드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로잔의호숫가 우쉬(Ouchy) 지구에 1993년 개관한 박물관이다. 레만 호수의 가장 수려한 곳에 평범하지 않은 자태로 빛을 발하고 있는 올림픽 박물관에서는 고대 그리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자료 및 필름, 의미있는 물건들을 전시하고 있다. 올림픽에 관해서는 세계 최대의 박물관이다.

Switzerland Tourism



Day 6

- 1. 구간: 로잔(Lausanne) 뉴샤텔(Neuchâtel)
- 2. 코스 길이: 170km
- 3. 코스 특징
- 로잔에서 레만 호수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다 쥐라(Jura) 산맥으로 향하는 여정
- 지중해 풍의 호숫가 마을: 꼬페(Coppet), 니옹(Nyon)
- 마르쉐뤼(Marchairuz) 고갯길을 오르며 드라이브하다 신비스런 분위기의 발레 드 주(Vallée de Joux)로 내려가는 여정
- 시계 마을, 르 상티에(Le Sentier)
- 160m의 절벽과 1km에 달하는 지름으로 거대한 암벽 아레나(arena)가 있는 크뢰 뒤 반(Creux du Van)을 지나는 여정

하이라이트 24: 제네바(Geneva)의 젯또(Jet d'eau) 분수

젯또(Jet d'eau)는 제네바(Geneva)의 레만 호수에 있는 140m 높이로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분수이다. 제네바의 명물로, 젯또를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남기기 좋다. 제또 분수(Jet d'Eau)의 가장 멋진 포토 포인트는 지역 주민들에게 수영 장소로 인기 있는 방 데 빠뀌(Bains des Pâquis)에서 볼 수 있다. 이 곳은 겨울이면 사우나로 인기인데, 퐁뒤로 저녁식사를 즐긴 후 따끈한 사우나를 위해 찾는 이들이 많다. 몽블랑(Mont-Blanc)의 장엄한 모습을 보고 싶다면 유람선을 타 볼 것을 권한다.

하이라이트 25: 크뢰 뒤 방(Creux du Van)의 암석 원형 경기장

뉴샤텔(Neuchâtel) 호숫가 건너편의 크뢰 뒤 방에서는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암벽으로 이루어진 원형 경기장을 볼 수 있다. 500m 높이에 자리한 최고 등급의 좌석은 언제나 아이벡스를 위해 예약되어 있는 듯 하다. 자연이 만들어낸 원형 경기장은 지름이 1킬로미터에 달하며 이는 물과 얼음의 지속적인 침식의 결과로 인해 만들어 졌다. 이 곳은 산양, 마모트, 사슴 및 맹금류 및 자연 애호가들에게 천국과도 같다.

Day 7

- 1. 구간: 뉴샤텔(Neuchâtel) 베른(Bern)
- 2. 코스 길이: 252km
- 3. 코스 특징
- 뉴샤텔 근교의 시계 마을, 라 쇼드퐁과 르 로클(Le Locle)
- 세 개의 호수에서 4000 미터급 알프스 지대, 베르네제 오버란트(Bernese Oberland)로 이어지는 여정
- 스위스에서 가장 예쁜 인공 호수 중 하나인 그뤼에르(Gruyère) 호수를 따라가는 여정



- 그슈타드(Gstaad)와 짐멘(Simmen) 계곡을 지나 내려가면 만나는 툰(Thun) 호수와 브리엔츠(Brienz)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
- 인터라켄(Interlaken)과 툰(Thun) 사이의 아름다운 호숫길 드라이브
- 낭만적인 알프스 마을, 인터라켄(Interlaken)
- 인터라켄 주변의 산 등정: 융프라우요흐(Jungfraujoch), 쉴트호른(Schilthorn)

하이라이트 26: 라 쇼드퐁(La Chaux-de-Fonds) / 르 로클(Le Locle): 도시 계획 및 시계 마을 : 유네스코 세계유산

시계산업의 중심지인 라 쇼드퐁과 르 로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마주하고 있는 두이웃 마을은 이 지역의 독특한 건축 방식의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시계 산업과 도시 계획의 중요한모델이 되어 주고 있는 두 마을은 해발 1,000m의 작은 산악 마을에서 시작해 세계 정상의 시계 마을로자리매김 하였다. 첫 눈에 두 마을은 지루하고 별 특징이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도시 전체의 빌딩하나 하나가 시계 제조를 위해 최대한의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유념하고 본다면도시 계획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 27: 라테니움(Laténium) 고고학 박물관 및 공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지난 몇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거나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100개 이상의 고고학 유적지가 빛을보게 되었으며 이로서 네안데르탈인(Neanderthal)에서부터 중세시대까지의 화제에 대한 더 많은역사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이라이트 28: 무어텐(Murten) 마을

무어텐(Murten) 호수의 남동쪽 제방에 위치한 작은 중세 마을 무어텐은 구시가지의 그림 같은 골목길과 그늘이 드리워진 아케이드가 있는데, 마을 초기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불어와 독어권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에는 호반에 자리한 아름다운 산책길이 있다. 무어텐 호숫가 위 언덕에 자리한 아름다운 지형적 위치 때문에 프리부르(Fribourg) 주의 800년 역사를 지닌 재링어(Zähringer) 가문의 마을은 인기 많은 관광지가 되었다. 저녁이면 호수 너머로 펼쳐지는 노을이 쥐라(Jura) 산맥과 몽뷔이(Mont Vully) 산의 풍경과 어우러져 웅장한 파노라마를 만들어낸다.

하이라이트 29: 프리부르/프라이부르그(Fribourg/Freiburg) 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거나 오래된 건물과 아름다운 분수대를 감상하거나, **74m**나 되는 대성당의 첨탑에서 저 멀리 펼쳐진 목가적 풍경을 바라 보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프리부르에서의 시간은 낭만적이다. 프리부르는 자네(Saane) 강의 삼면으로 둘러쌓인 바위투성이의 곶에 자리하고 있다. 위에흐틀란트(Üechtland)에 위치한 가장 큰 중세 도시의 한 곳으로써 **15**세기부터 내려오는 **200**여 채의 고딕스타일 양식의 건물들은 아름다운 중세적 매력을 지닌 구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다. 예술 애호가라면 장 팅켈리(Jean Tinguely)와 니키 드 생 팔(Niki de Saint Phalle) 박물관을 찾아볼만 하다. 과거에

Switzerland Tourism



창고였던 곳을 개조하여 프리부르에 살았던 장 팅겔리와 니키 드 생 팔의 전위적인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30: 그뤼에르(Gruyères) 마을

그뤼에르 성과 세 개의 박물관이 있는 그림같은 마을로, 언덕 위에 자리한 그뤼에르는 800여년의역사를 지닌 곳으로, 지금까지 중세의 특징이 잘 보존되어 있다. 13세기에 세워진 그뤼에르 성은 현재이 지역의 건축, 역사, 문화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에일리언의 창시자인 H. R. 기거의박물관도 그뤼에르에 있다. 무엇보다 이 마을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그뤼에르 치즈 공방을 방문해 볼 수 있다.

하이라이트 31: 그슈타드(Gstaad) / 자넨(Saanen) 샬레 마을

그슈타드-자넨 지역(Gstaad-Saanenland)은 베르너 오버란트(Berner Oberland)에 위치한 휴양지로, 스위스의 전통 가옥인 샬레가 마을에 가득하다. 특히 그슈타드 중심가는 스위스에서 가장 짧은 럭셔리 쇼핑 거리로 유명하다. 럭셔리한 리조트마을 답게, 미식 레스토랑, 고급 샬레 호텔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이라이트 32: 융프라우요흐(Jungfraujoch)

산맥을 관통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해발 3,454m)까지 올라가는 융프라우 철도는 어이거(Eiger), 묀히(Mönch), 융프라우(Jungfrau) 봉우리와 알프스에서 가장 긴 알레취(Aletsch) 빙하의 파노라마를 보여준다. 융프라우 철도는 클라이네 샤이덱(Kleine Scheidegg)에서 융프라우요흐(Jungfraujoch)까지 터널과 가파른 산등성이를 톱니바퀴를 이용해 오른다. 눈덮인 정상에 서면 융프라우부터 알레취 빙하까지 펼쳐지는 절경을 볼 수 있다. 빙하 안에 조성해 놓은 얼음 조각을 구경할 수 있고, 스핑크스 전망대에서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으며, 정상 레스토랑에서는 맛깔난 음식을 즐기며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하이라이트 33: 브리엔쯔(Brienz) 호수 유람선

옥빛 브리엔쯔 호수는 이웃하고 있는 툰(Thun) 호수와 함께 베르너 오버란트(Berner Oberland)에 자리한 웅장한 산 풍경을 선사한다. 전형적인 알프스 호수에서 유람선을 타고 이 근사한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여름이면 유람선마다 테마를 가지고 스위스 전통 요리 및 세계 요리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유람선으로 인터라켄(Interlaken)에서 브리엔쯔 호수 반대편에 있는 브리엔쯔마을까지 여행해 볼 수 있다. 유람선을 이용하여 기스바흐(Giessbach) 폭포를 찾아가 볼 수도 있다.

하이라이트 34: 베른(Bern) 구시가지 : 유네스코 세계유산

잘 보존된 중세 마을 모습으로 인해 베른의 구시가지 전체가 198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었다. 스위스의 수도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낭만적인 베른의 구시가지는 아레(Aare) 강이 에워싸고 있고

Switzerland Tourism



도시 저 너머로는 알프스 봉우리가 보인다. 6km에 달하는 쇼핑 아케이드와 르네상스 양식의 분수대 조각상, 그림같은 지붕으로 둘러싸인 대성당이 인상적인 베른은 유럽에서도 중세 건축 양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보석 중의 보석같은 도시이다.

Day 8

- 1. 구간: 베른(Bern) 취리히(Zurich)
- 2. 코스 길이: 315km
- 3. 코스 특징
- 스위스의 수도 베른(Bern)부터 스위스에서 가장 많이 방문받는 도시, 루체른(Luzern), 그리고 취리히(Zurich)까지의 여정
- 구릉지대 에멘탈(Emmental)의 아름다운 파노라마와 아름답게 장식된 농가
-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된 엔틀레부흐(Entlebuch) 습지와 할빌(Hallwil) 호수 및 발데그(Baldegg) 호수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여정
- 루체른 호수와 로이스(Reuss) 강이 흐르고 낭만적인 목조 다리, 카펠교(Kapellbrücke)가 있는 도시, 루체른(Luzern)
- 스위스가 탄생한 곳을 지나 로텐투름(Rothenthurm)의 스위스 최대의 고지대 습지를 따라 취리히 호수로 이어지는 여정
- 웅장한 알프스 산이 펼쳐지는 광경: 필라투스(Pilatus), 리기(Rigi), 티틀리스(Titlis), 슈투스(Stoos)
- 카페리로 루체른 호수 건널 수 있음
- 취리히 호수에서 라퍼스빌(Rapperswil)로 향하는 호숫길 드라이브

하이라이트 35: 에멘탈(Emmental) 치즈 공장 견학

면적 17,500m2 의 치즈농가 전시장에서 장작불 위 혹은 현대적인 구리 통에서 에멘탈(Emmental) AOC 치즈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있는지 가까이 지켜볼 수 있다. 공장 내 2곳의 레스토랑에서는 맛있는 향토 음식을 맛 볼 수 있으며 기념품 및 신선한 치즈와 빵도 구입할 수 있다. 그룹으로 예약을 하면 치즈 장인에게 치즈를 만드는 법을 직접 배워볼 수도 있다.

하이라이트 36: 엔틀레부흐 생물권 보호 지구(Biosphere Reserve Entlebuch)

스위스 중부의 생물권 보호 지역은 이 곳이 지닌 순수한 자연미를 선사해 준다. 겉으로 보기에 끝없을 것 만 같은 황야지대, 바위투성이의 카르스트 지형과 자연 그대로의 개천 등이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스위스의 어떠한 지역도 루체른의 '거친 서부(Wild West)'처럼 수많은 자연적 보고를 가지고 있진 않다. 스위스에서 가장 조밀하고 다양한 황야지대에서는 국가로부터 중요성을 인정받은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이때문에 엔틀레부흐(Entlebuch) 지역은 스위스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생물권 보호구로서 유네스코에 의해 선정되었다.



하이라이트 37: 할빌(Hallwyl) 성

역사적인 할빌 성은 11세기에 지어졌고, 스위스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물위에 세워진 성들 중하나이다. 할빌(Hallwil) 호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바흐(Aabach) 강 위, 두 개의 섬에 자리잡고 있다. 장엄한 실내는 1925년부터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물의 성 할빌은 할빌의 귀족들이 800년간 살았던 곳이다. 할빌 성 안에서의 전시실에서는 500명의 가족인원 중 대표적인 11인을 조명하고 있다. 빌헬미나 폰 할빌(Wilhelmina von Hallwyl, 1844-1930)이 성을 개보수 하였고, 가족 재단을 이용하여 1925년 대중에게 성을 공개하였다. 1994년에 성은 아르가우(Aargau) 주에 증정되었다.

하이라이트 38: 루체른(Luzern)의 카펠교(Chapel Bridge)

루체른을 상징하는 이 다리는 유럽에서 가장 오랜 된 지붕 있는 다리로 여겨지고 있다. 다리는 14세기에 세워졌으며 본래 도시 요새의 일부분이었다. 오늘날 카펠교(Chapel Bridge)는 로이스(Reuss)강 남쪽 제방에 있는 루체르너(Luzerner) 극장부터 라트하우스케(Rathausquai)에 있는 생 페터(St. Peter) 교회까지 놓여 있으며, 지그재그로 워터 타워를 지나간다. 워터 타워는 강력하면서도 매력적인 건축물이다. 34m 높이의 8각형 타워는 1300년 경 도시 성곽의 일부로 지어졌으며, 기록 보관소, 금고, 감옥, 고문실 등으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중간 층에 루체른 포병대가 자리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39: 필라투스(Pilatus)

루체른에 오롯이 위치한 필라투스(Pilatus)는 날씨를 좌지우지 하는 영엄한 신령, 용의 은신처, 거인의 집과 통치자의 무덤 등의 전설이 내려오는 신비한 명소 중의 한 곳으로, 중부 스위스 지역에 위치한 아름다운 산이다. 맑은 날에는 73개의 알프스 정상이 한눈에 보이는 경치를 자랑한다. 특히 세상에서 제일 가파른 톱니바퀴 열차로 유명하며, 루체른에서 유람선, 곤돌라, 케이블카, 톱니바퀴 열차를 이용해 필라투스를 여행할 수 있는 골든 라운드 트립(Golden Round Trip)이라는 여행 방식이 특색있다. 2015년 4월에는 프래크뮌테크(Fräkmüntegg)부터 필라투스 정상까지 운행하는 케이블카를 최신식으로 교체해 운행 중이다.

하이라이트 40: 시시콘(Sisikon)의 텔 예배당(Tell Chapel)

빌헬름 텔(Wilhelm Tell)은 누구인가? 스위스의 건국 영웅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을 루체른 호수 남단에서 시작할 수 있다. 브룬넨(Brunnen)에서 유람선을 타고 우르너제(Urnersee) 호수 주변을 돌아 보면 된다. 스위스 연방이 탄생한 뤼틀리(Rütli) 들판과 쉴러슈타인(Schillerstein) 바위, 텔 예배당, 텔 동상, 텔 박물관 등 빌헬름 텔과 관계된 모든 기념비와 전설을 이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이라이트 41: 아인지델른 수도원(Einsiedeln monastery)

아인지델론은 스위스 최대의 성지순례지로 수려한 바로크 양식의 아름다운 베네딕트 수도원은 18세기에 지어진 것이다. "흑인 성모 마리아(Black Madonna)"가 있어 유럽에서도 중세부터 가장



중요한 성지 순례지로 여겨져 왔다. 산티아고 길(Jakobsweg)이 바로 이 아인지델른을 지나간다. 과거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이 묵어가던 호스텔들은 현재 휴양지용 호텔로 거듭났다.

하이라이트 42: 취리히(Zurich) 그로스뮌스터(Grossmünster)

취리히 구시가지에 자리한 개신교 그로스뮌스터는 취리히의 얼굴이나 다름없다. 쌍둥이 첨탑이 인상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은 1,100년부터 건축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몇 차례의 재건축과 개조를 거쳐왔다. 16세기 전반 그로스뮌스터는 울리히 츠빙글리(Huldrych Zwingli)와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가 주도한 종교개혁의 시발지로 이용되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지하묘지, 교회와 회랑에 남아있는 아우구스토 자코메티(Augusto Giacometti: 1932)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 오토 뭉크(Otto Münch)의 동으로 만든 문(1935, 1950) 등 다양한 로마네스크 유산들과, 회랑에 자리한 종교개혁 박물관 등이 둘러볼만하다. 그로스뮌스터(Grossmünster)에 있는 두 개의 탑 중 하나는 카를슈투름(Karlsturm)이라고 불린다. 신도석부터 시작되는 187개의 계단을 따라 탑에 오르면 취리히의 지붕들과 호수, 장엄한 알프스 봉우리들의 모습까지 한 눈에 들어오는 조망지점이 나타난다.

스위스 그랜드 투어 가상 여행 홈페이지: http://grandtour.myswitzerland.com/en/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